

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
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

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

2019. 2. 17.



관계부처 합동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 [요약]

1 [긴급 피해지원]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

- (긴급용자) 항공수요 위축, 예약취소·환불급증 등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에 운영자금 긴급용자 지원(LCC 대상 최대 3천억원 규모)
- (운수권·슬롯유예) 중국노선 운항중단·감축 노선 미사용 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(2.5)하고 여행제한 지역에 따라 유예대상 확대
- (사용료·과징금 납부유예) 전년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(3월부터 적용, 3~5월분)
 - 항공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(즉시시행)
- (공항사용료·수수료 감면)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% 감면, 인천공항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 및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

2 [신규시장 확보]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

- (운수권 배분 및 노선 다변화) 파리, 리스본 등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(2월말), 베트남·라오스 등 중단거리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
- (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) 신시장 개척시 수요·시장성 조사 비용지원 등
- (적극행정) 사업계획 변경, 탄력적인 부정기편 등 신속·유연한 허가

3 [경영안정화]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

- (수요회복 착륙료 감면) 운항재개시 착륙료 증가분(약 20억원) 감면 검토
- (인천공항 슬롯 확대)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→70회 증대해 항공사의 신규취항·증편 지원(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)
- (항공분야 리스보증금 지원) 항공기 리스 시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(Standby-LC) 지원
- (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) C-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·평가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

1 피해현황

□ (여객수요) 코로나19 영향으로 한-중 노선(59개 노선)에 우리 항공사 운항횟수*는 77% 감소,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수요위축 확산**

* 1월초 주546회 → 2월1주 주380회(△30%) → 2월3주 주126회(△77%)

** 2월들어 열흘간(2.1~2.10) 여객감소 : 중국 △64.2%, 동남아 △19.9%

○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~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(03), 메르스(15)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중

* ① (사스) '02.11월 국내발병 → '03.3월 △8.4%, ② (메르스) '15.5월 국내발병 → '15.6월 △12.1%, ③ (C-19)'20.1월 국내발병 → '20.2.1~10일 △32.2%(전년동기대비)

□ (취소·환불)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·동남아 등 항공권 예약취소·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약 3천억원의 항공사 환불 발생*

* (1.26~2.12일) 대한항공 1,275억원, 아시아나 671억원, 제주항공 225억원, 진에어 290억원, 이스타 190억원, 에어서울 40억원, 티웨이 227억원 등

□ (화물피해) 중국발 인천공항 경유 미주·유럽·동남아행 항공화물 물동량이 급감하여 화물 간선 네트워크에 심각한 타격 우려

* 2.3~2.9, 대한항공 한-중 화물노선 운항 32% 감소, 특히 중국화물의 80%를 차지하는 환적화물(중국발→인천→미주/구주) 절반 감소(주간 4천 → 2천톤)

【 코로나19 영향 권역별 여객실적(전년 동기대비) (단위 : 명, %) 】

구분	일본	중국	동남아	기타아시아	미주	유럽	대양주	기타	합계
'19.12	1,160,695	1,523,924	2,591,255	935,801	478,863	445,775	380,115	84,165	7,600,593
	△39.0	16.4	17.6	6.1	11.8	6.6	35.4	25.2	1.5
'20.1	1,192,070	1,540,037	2,945,000	703,107	497,168	494,293	410,264	99,568	7,881,507
	△40.7	11.9	23.8	△23.7	9.8	4.3	26.0	18.7	△1.8
'20.2	339,184	162,498	691,983	143,552	148,544	154,091	106,132	31,838	1,777,822
1~10일	△6.0	△64.2	△19.9	△41.0	15.4	△2.1	△10.3	14.3	△32.2

☞ 1.20일, C-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후 2월 들어 급격히 여객실적 감소 2.1~10, 10일간 중국노선 △64.2%, 동남아 △19.9%, 전체노선 △32.2% 감소

2 지원 필요성

□ (영업전망) '19년 일본 수출제재,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*,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도 영업환경도 부정적

* '19년(잠정) 아시아나 △3,683, 제주항공 △348, 에어부산 △505 등

○ 일본 제재이후 중국·동남아 운항에 주력*했던 LCC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감소 지속시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중단 우려

*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운항가능(6시간 이내)

※ 우리 항공사의 운항 비중('19) : 일본(25%), 중국(16.8%), 동남아(32.4%), 미주(9.6%) 등

○ 특히 항공업계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'01년 9·11 테러에 비해 항공시장 4배 이상 성장* 등을 감안시 코로나19 영향은 훨씬 클 전망

* ('01년 9·11 테러) 국제항공 여객 2,181만명 수준 → ('19년) 국제여객 9,030만명
('01년) 항공사 2개(대한, 아시아나) → ('20년) 10개사 운항(신생 2개사 운항준비중)

□ (지역침체·안전) 지방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 LCC 위기시 향후 인바운드 유치* 곤란 및 지역 일자리·경기침체 가속화될 우려

* 중국노선 비중 43%인 청주공항에 최근 전체 중국노선(10개) 운항중단 등

※ **【대통령 지시사항('20.12.13, 국가관광전략회의)】**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

○ 항공사 경영위기시 정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항공안전도 위협, 연관업종(지상조업·관광·서비스 등)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우려

□ (업계요청) 항공업계는 매출급감 지속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등 '01년 9·11테러대책*에 준하는 실효적인 정부 지원 요청**

* 긴급경영안정자금 25백억원 용자(대한항공 1,400억원, 아시아나 1,100억원)

** 항공사 CEO 간담회(2.10, 국토부 장관 주재, 대한항공,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)

⇒ 긴급피해 지원과 수요 조기회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

3

긴급 지원방안

1. 긴급 피해 지원

(국토부, 금융위, 기재부)

◆ 코로나19 영향 단항, 수요감축 등 항공업계 피해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,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 항공사 부담 완화

① (항공사 운영자금 긴급용자)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

○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 지원

② (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)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·감축한 노선의 경우에는 운수권·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(즉시시행)

* (현행)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, 슬롯 80% 미만 사용시 회수되어, 슬롯·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 → (개선) '20년 한해 미회수

○ 여행자제(중수분 발표)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 확대

* 2.5일, 한-중 노선 미회수 결정 → 마카오, 싱가포르 등 필요시 지역 확대

③ (사용료·과징금 납부유예) 전년 동기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(3~5월분, COFIX 기준금리 연 1.6% 적용)

* (월평균 납부액) 대한항공 139억, 아시아나 71억, LCC 83억 / 국적사 293억

* (3개월 유예) 대한항공 417억, 아시아나 213억, LCC 249억 / 국적사 879억

○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부과되는 신규 과징금 발생시(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)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(즉시시행)

* 최근 5년간 항공사 과징금 368억원 부과, '19년에는 61.25억원 부과

④ (공항사용료·수수료 감면)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6월부터 착륙료 10% 감면(약 58억원, 2개월 기준)

○ '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('19.12)'에 따라 현재 감면중('20년 약 300억)*인 인천공항 각종 사용료를 수요 미회복시 감면 연장('21년

* 조명료(250억),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(40억), 페리기(빈 항공기) 착륙료(2억)

○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(감항증명), 수리·개조승인 신청시 항공기 증명·승인 수수료 50% 감면기간 2년 연장('20.6→'22.6)

2.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

(국토부, 기재부)

◆ 코로나19 영향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·신규 노선발굴, 행정지원을 신속·유연하게 추진

① (운수권 배분 및 노선 다변화)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, 헝가리, 포르투갈, 인도 등 운수권 배분(2월말)

【 정기 배분대상 여객 운수권(잠정) ☞ 증편 또는 신규취항 】

거리	장거리	중거리	단거리
신설/ 증편 취항지	프랑스(파리) 헝가리(부다페스트) 이집트(카이로) 포르투갈(리스본)	인도(뉴델리·뭄바이 등) 호주(시드니·멜버른 등) 키르기스스탄(비슈케크)	필리핀(마닐라) 중국(베이징 등) 팔라우

* 배분대상 중 대표적인 노선만 표기했으며, 운항사·배분횟수 등은 2월말 결정

○ 중단거리 대체노선 발굴 및 노선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퀴논·라오스 팍세 등 미개척 노선 발굴, 현지 슬롯확보 등 지원

② (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) 신규 개척지 수요·시장성 등 타당성 조사·분석, 현지교섭, 항공당국 협력 지원 및 인바운드 수요창출 지원

* 정부인·아웃바운드 수요창출 전략연구+민간항공사 개척비용 지원+합동노선개척지원단 파견

③ (적극행정) 단항·운휴에 따라 항공사가 대체노선 개설 등을 위한 노선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시 신속한 행정지원

* (현행) 항공협정 합치여부, 안전성, 이용자편의 등 고려 25일 기한 인가
 → (개선) 안전성 확보여부 검증外 기타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지원

○ 하계스케줄(3월말), 여름 성수기 등 감안해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이 가능토록 유연한 허가 및 상대국 슬롯 확보 지원

* 리스본, 오슬로 등 정기편 미개설 노선, 몽골·러시아 등 기존노선 임시증편 등

3. 항공수요 회복 및 안정적인 경영지원 (국토부, 금융위, 기재부)

◆ 코로나 19 종식시점에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, 슬롯확대, 항공기 보증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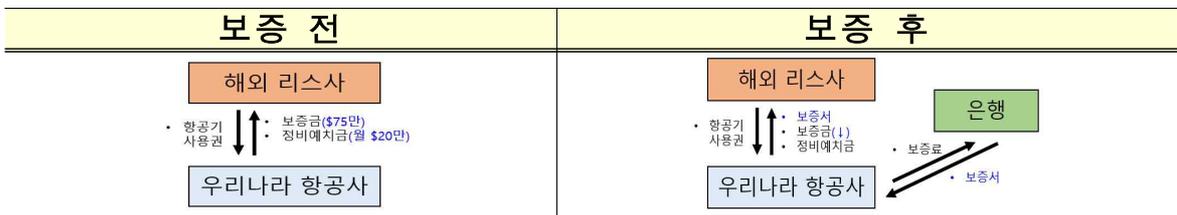
① (수요회복 착륙료 감면) 감편된 항공편을 향후 운항재개시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(약 20억원 추정) 감면 검토

② (인천공항 슬롯 확대) T2 등 시설확장(4.9조)에도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→70회 증대(법무부 출입국심사인력 증원시 시행)

*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

③ (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) 항공기 리스 시 초기부담*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(Standby-LC) 지원

* (예시) B737 월 렌트로 30만\$, 보증금(렌트로 3개월치, 10억원 수준)을 납부
 → 동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(Standby-LC) 지원



④ (공공기관 경영평가)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정책 추진으로 인한 재무지표 하락 등은 공기업 경영평가지 감안·평가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03. 18.(수) / 총 6매	
담당 부서	항공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기대, 서기관 권미정, 사무관 정재웅 · ☎ (044) 201-4204, 4181, 4189	
	국제항공과	담당자	· 과장 신윤근, 사무관 이호준, 사무관 황성필 · ☎ (044) 201-4207, 4211, 4215	
	항공산업과	담당자	· 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 · ☎ (044) 201-4219, 4223	
보 도 일 시		3월 18일(수) 8시 45분 이후 보도가능 (위기대책회의 이후)		

코로나19 피해,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.

항공사, 조업사,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 추가 감면, 약 3,851억원 납부유예
(기존 지원방안과 합산시 총 656억원 감면 및 5,005억원 납부유예 전망)

- ◆ **[운수권·슬롯] 전체 노선 전면 회수유예**, 항공사 영업권 보장
- ◆ **[사용료] 공항사용료 감면폭 및 조업사·상업시설 등 대상 확대**
 - (항공사) 정류료 전액면제(3월~5월),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(4월~6월), 착륙료 감면(3월~4월, 인천 20%, 한국 10%)
 - (지상조업사) 계류장 사용료 감면(20%) 및 납부유예(3월~5월, 구내영업료 포함)
 - (상업시설) 임대료 납부유예(3월~5월),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임대료 감면(3월~8월, 25%) 및 운항중단 공항은 임대료 전액면제
- ◆ **[적극행정] 조종사 시뮬레이터 훈련·자격유지, 조기운항재개 노력 등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(150개국, 3.17일)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「제1차 위기대책회의」에 상정·발표하였다.

□ 최근 동향을 보면, 코로나19 발생 초기 **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**은 호주,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(21개국 섯다운)이 확산됨에 따라, 3월 2주차 기준 **전년대비 약 91.7% 감소**하였다.

* 3월2주차 기준 주간 국제항공여객 : '19년 166만 → '20년 13.8만명 (▽91.7%)

○ 특히, '19년 하루 이용객이 **19만명**이었던 인천공항은 **1.6만명**(3.16일)까지 떨어져 **개항 이래 최저 실적**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
*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: '19.3.16일 19만명 → '20.3.16일 **1.6만명 (91.6%감소)**
(개항 '01년 5.2만명, 역대 최대 '19.8월 23.4만명, 역대최소 '03년 사스 2.7만명)

□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**항공·해운업 긴급 지원방안**(2.17, 경제관계장관회의), **민생·경제종합대책**(2.28) 등을 통해,

○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(금융위) 및 리스보증, 중국 노선 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,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.

○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.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 상황을 고려해, **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**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① 운수권·슬롯 전면 회수유예 >

□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(150개국, 3.17일)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**운수권과 슬롯의 회수**를 전면 유예한다.

○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**운수권**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, 지난 2.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**한-중 노선 운수권**을 1년간 **회수유예**한 바 있다.

-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·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하고,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'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.

* (규정) 年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 → (개선) '20년 미사용분은 '21년 미회수

-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(항공기 출도착시간)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'19년 동계시즌('19.10월말 ~ '20.3월말)에 대하여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,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.

* (규정) 시즌별(동/하계) 80%미만 활용시 회수 → (개선) '19.동계시즌 슬롯 조건없이 유예

< ②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>

-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(경제관계장관회의)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(3월부터 납부유예,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)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.

* (2월 17일 지원방안) 항공사 → (추가지원) 항공사, 지상조업사, 상업시설까지 확대

① 항공사 대상 지원

- 첫째,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,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.
- 둘째,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(무이자)를 시행한다.

* 착륙시 부과 사용료(제트기 기준 약 23만원)에 한해, 신청항공사 대상

- 셋째,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, 감면폭도 20%까지 확대(인천공항공사 20%, 한국공항공사 10%) 할 예정이며,
-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이와는 별도로,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(착륙료, 정류료, 조명료, 계류장사용료, 수하물처리사용료, 탑승교 사용료) 납부유예*(3~5월)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하여 적용중이다.

*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서울, 에어부산, 이스타항공, 티웨이항공, 플라이강원, 코리아익스프레스 등 총 24개 항공사 신청

② 지상조업사 대상 지원

-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(무이자) 및 20%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,
-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(무이자)를 적용한다.

③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 지원

- 공항 내 상업시설(기내식·급유 등 포함)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(무이자)를 시행한다.
-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'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(2.28.)'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% 감면을 지원하며,
-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(국제선 : 제주, 대구, 청주, 무안 / 국내선 : 사천, 포항, 원주, 무안)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 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.

○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, 지상조업사에는 약 41.5억원, 상업시설에는 약 3,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.

* 기존 지원대책과 합산 시, 항공사 1,560억원, 지상조업사 41.5억원, 상업시설 4,060억원 등 총 5,661억원 지원(감면 656억원, 납부유예 5,005억원)

【 인천/한국 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 】

지원 대상	세부 내용		지원금액		구분
			감면	납부유예	
항공사	사용료 납부유예	착륙료, 정류료 등 주요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(3월~5월, COFIX 기준금리 적용)		약 1,032억	2.17. 대책
	조명료	'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(19.12월)에 따른 인천공항 각종 사용료(조명료 등) 감면기한 ('20년)을 '21년까지 연장	약 300억		
	수요회복 착륙료	감편된 항공편을 향후 운항재개 시 전월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	약 35억		
	정류료	3월부터 3달간 100% 면제 (3월~5월)	약 79억		추가 대책
	착륙료	6월 예정 이던 착륙료 감면 3월부터 조기시행 및 감면수준 확대 (인천 20%, 한국 10%)	약 114억		
	소계		약 528억	약 1,032억	
지상 조업사	계류장 사용료	3월부터 3달간 계류장 사용료 20% 감면 및 납부유예 (3월~5월, 무이자)	약 3.1억	약 13.3억	추가 대책
	구내영업료	3월부터 3달간 납부유예 (3월~5월, 무이자)		약 25.1억	
	소계		약 3.1억	약 38.4억	
상업 시설 (기내식, 급유 등 포함)	중소기업, 소상공인	상업시설 임대료 3월부터 6개월간 25% 감면 (3월~8월) * 매출연동 임대료는 6개월 납부유예(무이자)	약 114억	약 121.5억	2.28. 대책
		※ 운항중단 공항은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 (~운항재개 시까지)	약 11억 (3개월 기준)		추가 대책
	기타	3월부터 3개월 납부유예 (3월~5월, 무이자)		약 3,813억	
	소계		약 125억	약 3,935억	
합계			약 656억	약 5,005억	

* 감면·납부유예 금액은 전년기준 및 현재 상황을 토대로 추산한 추정치로, 실제 지원금액은 추후 발생금액에 따라 변동예정

〈 ③ 적극행정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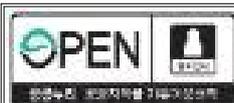
□ 한편, 운항중단·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**미사용 유도**로, **제방빙계류장**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(489면)·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·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,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,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·자격심사는 **시뮬레이터(모의비행장치)**로 대체 하도록 한다.

- 아울러,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 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.

< ④ 고용유지 지원 >

-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'특별고용 지원 업종'으로 지정(3.16, 고용노동부 고시) 되어
 - 휴업수당의 2β~90%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,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.
-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, 각종 사용료 감면,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”고 언급하며,
 - “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 - 한편, “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,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·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하여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서기관(☎ 044-201-41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